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文化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선재
충청대학 의상디자인과
조교수 양경애

目 次

I. 序 論	4. 三國의 狩獵服飾
II. 三國時代 支配階層 構造	IV. 三國時代 服飾의 獨自性
III.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 樣相	V. 結 論
1. 三國의 公務服飾	參考文獻
2. 三國의 戰鬪服飾	ABSTRACT
3. 三國의 儀禮服飾	

I. 序 論

三國時代 服飾 研究는 文獻資料와 出土된 裝身具類, 古墳壁畫 人物風俗圖에 나타난 服飾, 土偶服飾 등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까지 문헌자료에 근거한 한국복식학계의 연구동향은 주로 三國服飾의 類似性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또 考古學的 發掘資料를 중심으로 한 복식 연구는 冠과 冠飾, 耳飾, 頸飾, 帶와 腰佩, 鉏, 指環, 金銅履 등에 관한 考古學的, 美術史的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출토 유물 자체의 樣式的 紛明이 주가 되며 服飾史的 見地에서 유물들을 착용했을 착용자 조건이나 착용되는 상황에 관한 논의는 부족했다고 본다.

本稿에서는 삼국시대 복식의 類似性을 강조해온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복식이 입혀질 때는 着用者の 社會의 身分·地位·性

등의 着用者 條件과 氣候·季節·風土 등의 自然的 條件 그리고 政治·經濟·宗教·文化·風俗·集團構成員의 價値觀 같은 社會的 條件에 따라 복잡한 變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국시대 지배계층 복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삼국시대 복식이 국가마다 의미있는 수준에서 差別性을 떨 것이다라는 筆者の 假定은 복식 형태 결정의 一次的 條件인 氣候가 각國마다 달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며, 또한 신분제 사회의 권력 핵심인 지배계층 구조 또한 각국마다 相異하여當代人들의 服飾觀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推定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三國史記』 本紀 내용을 計量史學의 입장에서 分析하여 삼국시대 지배계층 복식을 착용상황인 公務·戰爭·儀禮·狩獵의 네 범주로 묶어 고찰할 것이다.¹⁾ 또 각 상황이 발생한 頻度에 따라 統計를 내어 季節服飾까지 살핌으로써 古

1) 申瀬植, 三國史記研究, (일조각, 1981), p.318.

任桂淳, 歷史學에 있어서의 計量的研究方法의 意義, (이화사학연구 11·12, 1981), pp.26~31.

墳壁畫服飾을 설명하는 더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어느 계절에 使臣派遣, 戰爭, 狩獵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또한 考古學의 연구와 文獻研究를並行하여 양쪽의 성과를 종합하여 美術史學·民俗學·氣候學·言語學 등 補助科學의 도움을 받아 각 분야에서 취급하고 개척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II. 三國時代 支配階層 構造

고구려 官制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이른『三國志』魏志 高句麗傳에는 相加, 對盧,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 丞, 使者, 早衣, 先人 등 10개 등급의 官階名이 나온다.²⁾ 4세기 초까지 고구려 官制는 王 아래 古鄒加·相加·對盧·沛者·優台·主簿 등의 관리가 있었고, 王과 相加는 使者·早衣·先人 등의 家臣을 거느렸다. 大加 역시 王家에서 둔 官職을 둔 듯하다. ‘加’신분은 국가권력의 통제 아래에 大加와 小加로 편성되어 외형상 구분되는 보편적인 지배계층³⁾으로 族長이 지배하는 집단의大小 구분에 따른 듯하다.

고구려 官階는 『周書』에서부터 12개 혹은 13개로 늘어났다. 『魏書』에는 그 이전의 史書에 볼 수 없는 謂奢, 太奢 등이 보이므로 北魏에 해당하는 어느 시기부터 高句麗 官階가 늘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같은 官階組織은 수차례 변하여 말기에는 14등급으로 완성되었다. 首相에 해당하는 1等階인 大對盧, 2等階 太大兄, 3等階 韻折, 4等階 大夫使者, 5等階 早衣頭大兄 등은 최고 귀족들이 차지하고 이들이 일종의 貴族會議를 구성하여 중요한 國事를 처리했다.⁴⁾

百濟는 한성시대에 5部體制 아래 佐平과 率 그리고 德으로 표현되는 官制가 지배조직의 根幹이 되었다. 最高位의 佐平은 内臣佐平, 内頭佐平, 内法佐平, 衛士佐平, 朝廷佐平, 兵官佐平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관직으로는 長史·司馬·參軍 등이 있었고 이 관직은 대체로 對中國 外交使節의 성격을 띠었다.

聖王 16年(538)의 泗沘 천도는 百濟史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시기 관등제의 핵심은 1品 佐平에서 16품 克虜에 이르는 16官等制이다. 1品인 佐平은 그 員數가 5名(6名)으로 정해져 있고 泗沘時代 후기에 이르면 大佐平 등의 존재가 등장한다. 2품 達率에서 6품 奈率까지 5관 등은 모두 率을 語尾로 한 率系 관등으로 한성시대에 분화되기 시작하여 사비시대에 와서 정비된 듯하다. 7품 將德에서 11품 對德까지는 모두 德이란 語尾가 나오므로 德系 관등이라고 할 수 있다. 12품 文督과 13품 武督은 督系 관등이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官等史에 있어서 최초로 文·武 구별을 나타내주는 관등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4품 佐軍과 15품 振武·16품 克虜는 대체로 武의 성격을 갖는 武系 관등이다. 이 관등은 아마도 小國 首長層들이 지녔던 지배기구가 고대국가체제로 정비되는 과정에 하부구조로 편입⁶⁾된 것으로 사료된다.

新羅의 中央官階 조직은 신분제도인 骨品制度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法興王代에는 伊伐浪에서 造位에 이르는 17等級으로 분화·발전하였다. 원래 骨品制는 朴·昔·金 세 부족이 尼師今을 세부족에서 교대로 선출하여 족장세력을 편제하는 방법으로서 마련된 제도였다. 즉 村長 또는 氏族長에게는 4頭品의 신분을, 族長級을 통합한 더 큰

2) 金哲埈,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0), p.230.

3) 김광수, 高句麗 古代執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p.145.

4) 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268.

5) 金哲埈,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0), p.63.

6) 盧秉國, 頓계서, p.226.

세력자에게는 5頭品 신분을, 그 위의 부족국가 족장급에는 6頭品 신분을 주었으며, 2개 이상의 부족을 통합한 부족연맹의 세력자나 거기에서 轉化된 王族이나 중앙귀족에게는 眞骨 신분을 주고, 왕족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김씨왕족 直系에게는 聖骨 신분을 주었다. 骨品制는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骨制와 일반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頭品制로 나누어지며 원래는 총 8개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후에 聖骨이 없어지고 3頭品 이하는 의미를 잃고 통상百姓으로 불리어졌다. 중앙관직이든 지방관직이든 골품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 6頭品은 第6官等까지, 5頭品은 第10官等까지, 4頭品은 第12官等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⁷⁾

中古期 신라 最高官職이었던 上大等은 法興王 18年(531)에 처음 설치되었고 大等으로 구성되는 귀족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중앙귀족회의에서 可決된 國事를 왕의 裁可를 얻어 집행하였다. 上大等은 上古期의 伊伐食·伊食·舒弗邯 역할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支配階層 구조는 國王과 貴族 사이의 정치적 對立으로 상정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국왕과 귀족간의 정치적 타협이 上大等 설치였고, 王權은 佛教의 수용과 장려 속에서 成長할 수가 있었다. 그후 왕은 權力を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의 행정적 대리자인 侍中을 통해 그 권위를 유지하려 했다. 中代 이후 광범위한 兼職制가 보급되면서 일부 진골 귀족들의 배타적인 권력 독점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신장함은 물론 왕권에

견제기능을 행사하여 한 것도 신라 권력구조의 특징이다.

III.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 樣相

1. 三國의 公務服飾

가. 高句麗의 公服制度

고구려 공복제도는 관모가 다양하게 변화한데 비해 복식은 7세기까지도 大袖衫(同袖衫·筒袖衫)·大口袴·素皮帶(白韋帶)·黃革履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時代 變遷과 함께 '無後幘'→'鳥羽를 꾸운 折風'→'紫羅로 만들고 金銀으로 裝飾한 鳥羽蘇骨'→'金銀으로 鹿耳를 만들어 덧붙여 裝飾한 幓'→'金銀으로 裝飾하고 鳥羽를 꽂은 青羅冠·緋羅冠'→'鳥羽裝飾한 青羅冠·緋羅冠' 등으로 변화한 관모류 중 책과 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幓

『三國志』에 '높은 貴族인 大加主簿가 쓰는 幓은 중국의 책과 같으나 無後다(大加主簿頭著幘如幘而無後)'라는 문구가 高句麗 初期 幓 형태에 관한 설명의 전부이며 한국복식학계에서는 주로 '고구려의 책은 중국의 幓과 달리 幓 뒤(後)에 늘어지는 것(收)이 없다'⁸⁾라는 의미로 해석해 왔다. 李如星, 柳喜卿, 白英子, 朴京子, 高福男, 姜淳弟, 高光林, 정순원·이순원, 杉本正年 등은 4세紀~5세紀 古墳인 安岳 3墳, 德興里 古墳, 安岳 2墳, 痛

7) 한국민족사연구회 편, 한국민족사 1, (풀빛, 1986), p.117.

8)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p.140~147, pp.165~171.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85), p.18.

金東旭, 韓國服飾의 基本構造, 韓國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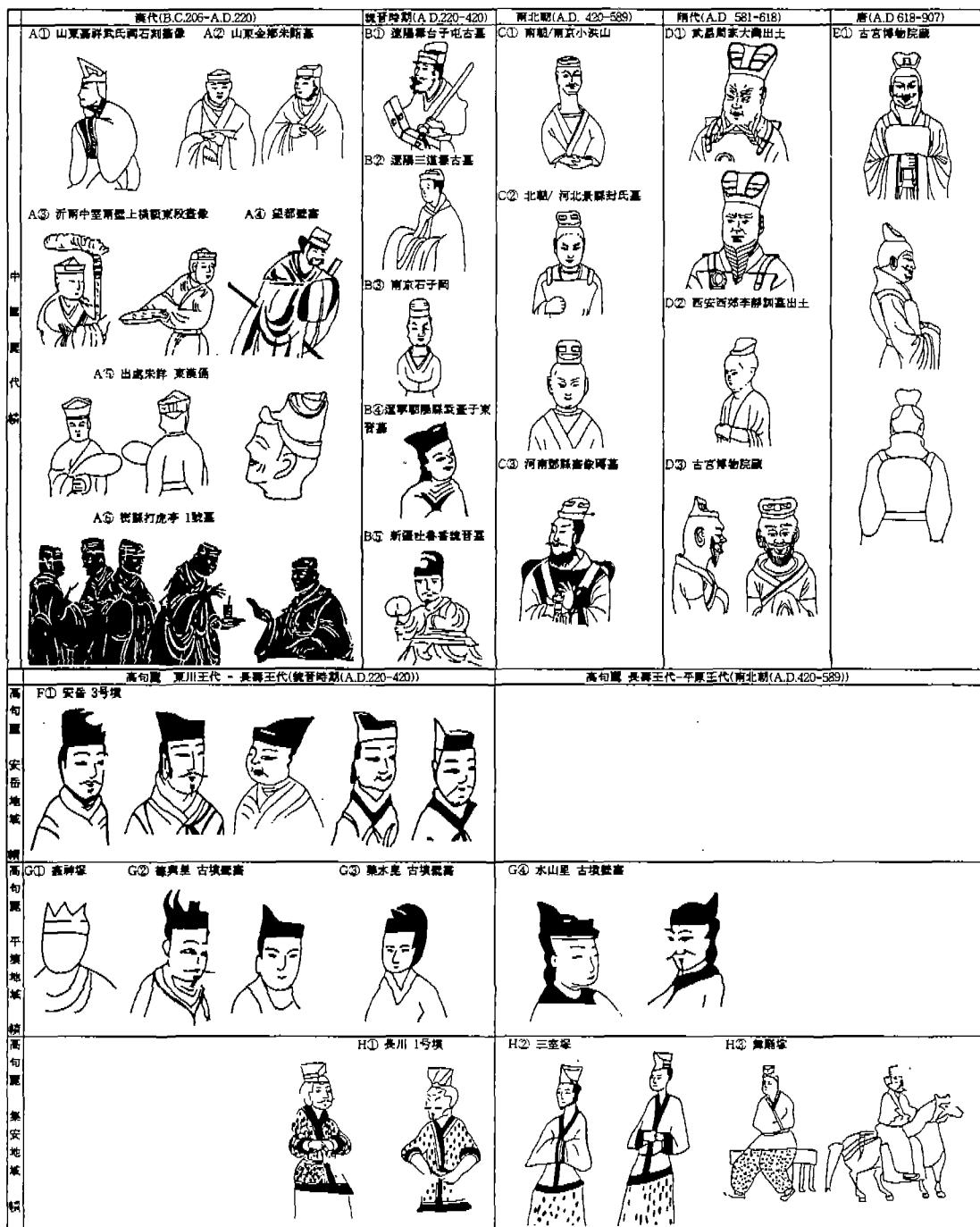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교문사, 1986), pp.43~44.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pp.434~437.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3), p.40.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研究 -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14.

정완진·이순원, 高句麗 冠帽研究, 복식 23호, (한국복식학회, 1994), pp.155~158.



〈圖 1〉中國歷代幘斗高句麗幘的比較

神塚, 藥水里 古墳, 水山里 古墳 등의 벽화에 보이는 관모를 통해 을 설명하였다.⁹⁾ 그러나 이들이 예로 든 帽 형태는 漢代의 帽과 다르며, 魏晉時期 (220~420년) 帽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圖 1>

고구려 책은 中國 史書에 기록되었듯이 중국 책과 형태적으로 類似할 따름이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幘如幘無後’이지 ‘幘如幘’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은 고구려 책의 형태적 특징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로 兩國家間幘 형태가 분명 달랐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圖 1-B④⑤>와 <圖 1-F①, G②③④>가 거의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은 고구려 책으로 설명되던 안악과 평양지역 관모가 『三國志』에 기록된 帽과는 다르다는 假定을 가능하게 한다.

漢代의 幓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幓은 4~5세기 집안의 마선구 1호분, 장천 제1호분, 무용총, 삼실총 등의 고분벽화 주인공들의 冠帽를 통해 확인되며 이 관들은 幓冠,¹⁰⁾ 四角幘,¹¹⁾ 小冠,¹²⁾ 幓,¹³⁾ 角巾,¹⁴⁾ 笠形帽,¹⁵⁾ 白羅帽,¹⁶⁾ 등처럼 다양하게 命名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고구려가 초기에 漢의 郡縣 玄菟에서 衣幘를 빌려다 썼다는 기록을 참고하고 漢나라 幓과의 형태적 유사성과 5세기까지 집안지역이 首都로서 갖는 對外 政治·文化的 位相을 근거로 이 관모를 漢의 을 수용·보방한 高句麗幘으로 본다. 더욱이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은 被葬者の 國籍問題로 논란이 많다. 韓國學界와 外國學界에서는 괴장자의 성격을 중국에서 踏化해 온 冬壽로 보고,¹⁷⁾ 北韓學界에선 고구려 美

9) 李如星, 전계서, pp.169.

柳喜卿, 전계서, p.44.

白英子, 전계서, pp.45~46.

朴京子, 전계논문, pp.54~56.

高福男, 전계서, pp.436~437.

姜淳弟, 전계서, pp.14~15.

姜淳弟, 우리나라 관모의 변천, 한국복식2천년, (신유문화사, 1995), p.207.

高光林, 韓國의 冠帽, (교서관, 1990), p.529.

정순원·이순원, 전계논문, p.158.

杉本正年, 전계서, pp.319~320.

10) 방기동, 강인구 譯, 길립침안마선구1호벽화묘, 백제문화 제 13집,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1980), p.94.

11) 안명숙·김용서, 韓國服飾史, (교문사, 1986), pp.21~22.

12) 金貞鎬, 高句麗支配階層服飾,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52.

13) 梁慶愛, 高句麗人의 服飾文化考察－집안지역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복식 제25호, 한국복식학회, 1995), pp. 185~186.

14) 김성희, 魏晉時代 冠帽類型에 대한 社會的 意義, (복식 19호, 1992), p.55~56.

15) 高福男, 전계서, pp.440~441.

16) 金東旭, 전계서, p.3.

17) 채병서, 안악지방의 벽화고분, (백산학보 제2호, 1967), pp.1~64.

김정배, 안악 3호분 괴장자 논쟁에 대하여－동수묘설과 미천왕릉설을 중심으로－, (고문화 16, 1977. 6).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1973), p.167.

金元龍, 韓國墳墓古墳, (일지사, 1980).

공석구, 안악 3호분의 목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역사학회, 1989. 3).

최무장·임연철, 高句麗壁畫古墳, (신서원, 1990. 5).

숙백, 朝鮮安岳所發見的冬壽墓, 문물참고자료 1, (1952).

楊泓, 고구려벽화석묘, 문물참고자료 4, (1958).

홍정옥, 관간동수묘적발현화연구, 고고, (1959~1).

강기경, 안악제3호분(동수묘)의 연구, 사연 39, (구주대, 1964).



〈圖 2〉 羅冠으로 命名되어 온 冠帽

川王이나 故國原王으로 보고 있다.¹⁸⁾ 그러나 古墳
壁畫 服飾은 중국복식 요소가 濃厚하며 을 높은
관리부터 낮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하고
있어 『三國志』에 기록된 고위관리가 착용했다는
내용과도 相沖한다. 평양과 안악지역이 중국 郡縣
의 영향을 4세紀까지 직접 받았던 점¹⁹⁾과 또 무엇
보다도 착용한 관모나 服飾構造, 裝身具 등이 魏
晉時代의 복식과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이 두 고분
에 나타난 주인공 복식은 중국복식일 가능성성이 크
다고 본다.

이외에도 藥水里, 水山里, 雙檻塚 등의 평양지
역 고분벽화 복식에 중국 복식요소가 강하게 반영
된 이유는 4세紀까지도 中國 郡縣이 존속하여 더
발전된 문화를 모방·수용하고자 하는 평양지역

지배계층 육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침안지역은 5세기 초
까지 고구려 수도로서 설혹 中國 服飾文化의 영향
을 받더라도 高句麗化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5세기 말의 벽화복식에서 조차
袍가 아닌 褍와 衽를 입고 있어 이같은 가정을 뒷
받침해 준다.

② 羅冠

羅冠으로 명명되어 온 冠帽는 안악과 평양지역
고분벽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일곱 基
에 9개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圖 2〉

羅로 만든 관은 金銀으로 장식하고 烏羽를 꽂으
며 紫色·青色·紺色(絳色) 등의 색이 있고, 簡袖
衫, 大口袴, 白章帶, 黃革履 등과 함께 착용한다.

18) 姜仁求, 평양학계의 고구려고분 조사연구 성과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80~100.

朱榮憲, 『안악 3호분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2).

朱榮憲, 『고구려 돌칸 흙무덤의 연원』, (역사과학, 1984~3).

朱榮憲, 高句麗 古墳壁畫, (북한고고학술총서 8. 조선화보사, 1986), pp.28~32.

박진욱, 『안악 3호분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19) 高久 健二, 樂浪古墳文化研究, (학연문화사, 1995).

하지만 지금까지 羅冠을 쓰고 있는 인물은 모두 袍를 입고 검은색 띠를 두른 中國服飾을 모방한 차림새이다. 특히 왕의 관모인 白羅冠을 썼다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은 王服의 특징인 五綵服(五采服)에 金飾으로 꾸민 冠과 白皮素帶(金釦革帶)를 끼어야 하는데 그는 검은색 띠에 東晉時代 貴族이 드는 털부채를 쥔 중국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가 唐과 정치적 관계를 맺은 기간은 불과 반세기에 지나지 않아 『唐書』에 기록된 白羅冠이란 고구려 王의 冠帽는 고분벽화에 표현될 기회가 없었다. 필자는 안악 3호분 주인공이 두 개의 관을 함께 쓴 것으로 보며, 內冠을 幡으로 외관은 武冠²⁰⁾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後漢書·輿服志』에 ‘武冠은 일명 武弁大冠이라고도 하며 모든 武官의 冠이다’라고 하였다. 또 『晉書·輿服志』에는 ‘武冠은 일명 武弁, 大冠, 繁冠, 建冠, 龍冠(즉 옛날의 惠文冠으로 趙惠文王이 만들었다고 불여진 이름)이다’라고 했다.’ 天子의 元服 역시 먼저 大冠을 쓰고 左右의 侍臣과 將軍 武官이 모두 통용해서 썼다. 이 관은 漢代에 크고 작은 두 종류가 있었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 작은 형태의 것은 𩷣이나 皮革으로 만들었으며 많은 경우 軍中에서 썼다. 비교적 큰 것은 일종의 漆紗로 만들었는데 侍衛儀仗과 宮庭禮服에 사용했다²¹⁾ 한다. 漢代 이후에도 武冠은 광범위하게 쓰여졌다.

나. 百濟의 公服制度

『周書』·『北史』에 의하면 朝服과 儀禮服에는 새 깃털을 끓어 장식하고 戒服에는 새 깃 장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에 따라 복식에 차이를 두었다. 『三國史記』와 『周書』 내용을 비교할 때 『三國史記』는 중국 公服制度의 色體系를 모방한 듯한 공복색과 왕의 공복제도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 『周書』보다 백제 후기 공복제도의 내용인 듯하다. 즉 초기에는 紫·臘·赤·青·黃·白의 여섯 단계 帶色으로 등급을 나누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紫·緋·青 세 단계 服色을 기준으로 등급을 표시한 것 같다. 그러나 6품 奈率 이상의 관리에게만 허용된 銀花裝飾은 3세기 제정된 이래 6세기 실물출토에서 확인되듯이 제도 변화 없이 지속되어 백제 공복제도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다. 新羅의 公服制度

新羅는 6세기 法興王代에 이르러 朱紫의 次序를 통해 공복제도를 마련했다. 이때 제정된 공복제도는 服色을 통한 位階를 표현한 방법을 채택한 것이며 복식구조는 褌과 衽를 입고 冠帽를 쓴 服制였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金春秋가 入唐하여 請賜官服을 한 이후인 649년 이후 당의 공복제도를 본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변화를 겪게 된다.

祭服과 朝服에 비해 機能性을 우선하는 公服은 소매가 좁은 衫制였다. 唐 貞觀 4년(630년)에 공복 색상을 1~3품은 紫色, 4~5품은 緋色, 6~7품은 綠色, 8~9품은 青色 4단계로 나누었다. 따라서 紫色은 唐代 官吏 공복 중 가장 귀중한 것이기에 후에는 관원과 귀인의 복장으로 紫袍란 말을 널리 썼다. 青袍는 青衫이라 불렸는데 唐 官服 중 가장 낮은 者의 것이다. 신라에서는 빈번히 遣使入唐하였

20) 劉永華, 전계서, pp.40, 47~48.

黃能毅·陳娟娟,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6), p.89, p.97.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95), p.1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增訂本, (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1992), pp.148~149.

周迅·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出版社, 1996), p.7.

周迅·高春明,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83), p.3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75년), pp.85~86, pp.103~104.

21) 劉永華, 中國古代軍戎服飾, (上海古籍出版社, 1995), p.40.

고 사신들은 공복을 사여받았으며, 결국 이들이 받은 공복은 신라 공복제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2. 三國의 戰鬪服飾

가. 高句麗의 戰鬪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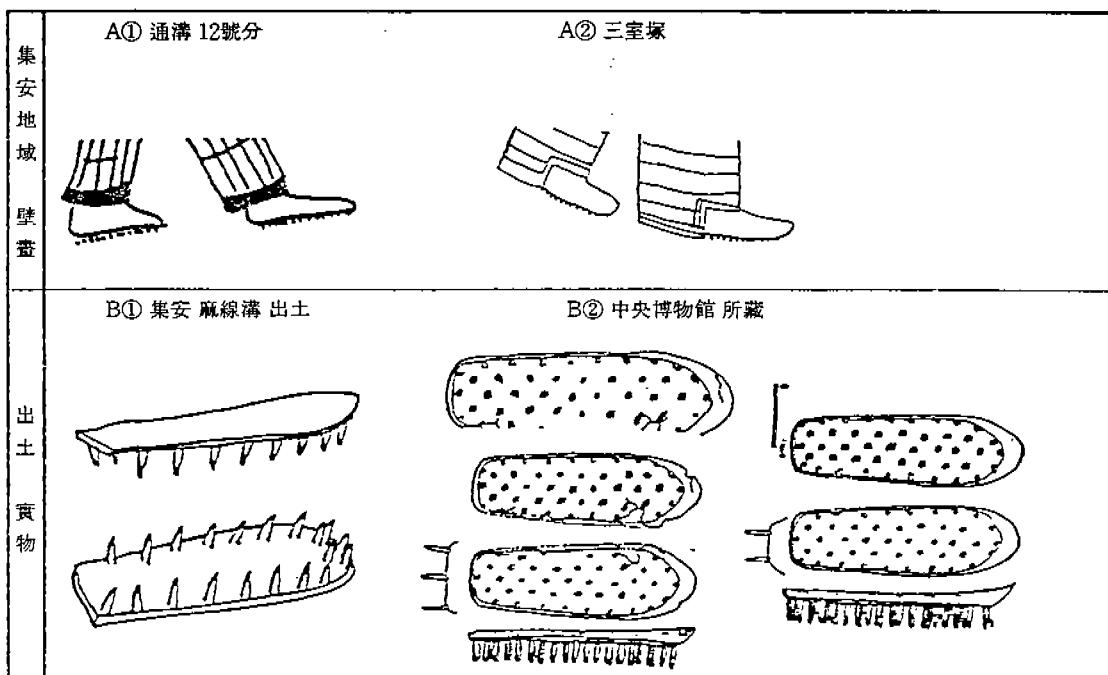
胄는 양쪽 귀 위로突出한 雙角이 붙어 있고 머리 뒷부분을 전부 다 덮은 형태를 띠며 꼭대기에는 뱃빳이 선 장식다발을 끊어 장식했다. 마선구 1호분 북벽 동단에 있는 鎧馬武士는 양쪽 귀 부분에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뒷목을 가릴만큼 높은 頸甲이 있는 갑옷을 착용했다.²²⁾ 甲胄는 敵의 무기로부터 신체를 防護하는 목적 뿐 아니라 전투를 지휘하는 계층의 신분을 표시하고 偉容을 드러내는 과시적 기능도 갖추어야 했다.

안악 3호분과 덕흥리 고분, 감신총 등에서는 伏

鉢式 투구의 존재도 확인된다. 그 중 안악 3호분의 儀仗行列時 군인들이 착용한 巾上幘은 魏晉의 服制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갑옷을 입은 무사들 중 다소 신분지위가 낮은 자는 魏晉時期의幘을 胄 대신 썼으며 騎兵과 步兵의 胄 형태도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갑옷은 상하가 분리된 구조이며 물고기 비늘 형태의 甲片을 연결시켜 만들었고 보통 桂甲 또는 札甲이라 불리운다. 이같은 형태의 갑옷은 短甲에 비해 움직임을 좋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騎馬戰鬪에 적합한 형태로 유추된다. 삼실총 제 2실 서쪽 벽의 무사는 最高의 盛裝을 한 듯하며 착용한 갑옷 바지는 고구려 갑옷의 또 다른 특징이다.

武土가 신은 신 가운데 鐵釘履와 金銅釘底鞋²³⁾는 매우 독특하다. <圖 3> 쇠못신은 가죽끈으로 발등에 묶어 신은 듯하며 눈 위를 걸을 때나 登山時



<圖 3> 鐵釘履와 金銅釘底鞋

22) 방기동·姜仁求譯, 길림 집안 마선구 1호 벽화묘, (백제문화 제 13집), p.94.

23) 최무장, 전계서, pp.914~916.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병사들이 사용한 듯하다. 금동신은 쇠못신에 비해 정교하여 지배계층의 겨울 전투용 신발류로 보인다. 신바닥의 뜻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과 또 뜻이 짧게 얇은 흔적, 뜻이 빠지거나 신발이 파손되고 균열이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실제로 사용했음을 암시한다. 고분벽화에서 장군이 착용한 모습이 확인될 뿐 아니라 출토유물도 발견됨에 따라 실제 戰鬪時 착용하여 偉容을 과시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通溝 12号墳과 三室塚 古墳壁畫를 통해 金銅釘底鞋의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평양과 안악지역의 벽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추측컨대 鐵釘履와 金銅釘底鞋는 집안지역의 혐악한 지형에 적합한 겨울용 戰鬪用 신이 아니었나 한다.

나. 百濟의 戰鬪服飾

百濟의 戰鬪服飾에 관한 자료는 극히 부족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出土遺物로는 소뼈를 얇게 갈아서 長方形으로 만든 小札片의 骨製札甲片이 있다. 이 札片은 서울 강남구 夢村土城에서 발굴된 것으로 백제 漢城時期의 갑옷의 일단면을 보여준다. 骨製札甲片을 연결하는 방법은 좌·우모를 죽인 가장자리 위아래 2곳에 각각 작은 구멍을 뚫고 중앙에 작은 구멍 한 개를 뚫어 이 구멍을 통해 끈을 끼어 연결시킨 듯하다. 그러나 끈이 모두 썩고 없어 그렇게 추측을 할 따름이다. 『三國史記』에 唐에 明光鎧와 鐵甲·金甲을 贈하고 高句麗에도 金髹鎧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단, 백제에서 唐과 高句麗에 바쳤다는 갑옷이 唐代의 13種類나 되는 갑옷 중에서도 가장 주종을 이룬 갑옷인 明光鎧였던 점을 근거로 할 때 백제의 갑옷 제작을 위한 金屬細工術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그같은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의 明光鎧나 고구려의 金髹鎧와 백제 갑옷과의 어떤 형태적 유사성이 있지 않았나

假定해 본다.

다. 新羅의 戰鬪服飾

4~5세기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短甲類와 투구류 중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가야지역 것도 포함한 甲胄는 短甲 7領, 眉庇甲胄 4列, 衛角付冑 2개가 있다.²⁴⁾ 鐵製冑는 형태적 특징과 구성 철판의 종류에 의해 縱長板冑, 弯曲縱長板冑, 遮陽冑, 衛角付冑, 冠帽形伏鉢冑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갑옷은 크게 여러 모양의 철판을 연접하여 만든 板甲과 小札을 가죽끈으로 연결한 札甲의 두 종류가 있다. 頸甲, 肩甲, 上膊甲, 臂甲, 大腿甲, 膝甲 등의 부속갑옷을 구비한다.

札甲은 桂甲이라고 하며 일정 크기의 小札을 橫으로는 草結하여 고정시키고 縱으로는 수결하여 上下 流動性을 갖도록 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라의 갑옷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小札로 이루어진 札甲은 처음 戰國時代 後期에 出現하여 漢代에 이르러 鐵生產의 발달과 함께 유행하였다. 5세기에 활갑은 영남 지역에서 각광을 받는 갑주로 등장하고 복발을 가진 만곡종장판주와 함께 나팔 모양의 경갑, 비갑 등의 附屬具와 함께 출토된다. 또한 등자, 안교등의 馬具類와 함께 馬冑, 馬甲 등도 출토되어 이 갑옷의 성격이 騎馬用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영향을 받아 재래식 갑주인 短甲에 비해 우수성이 인정된 札甲이 지배층에게 애용된 듯하다. 5세기에 보이는 札甲과 만곡종장판주는 馬具類, 金工品과 함께 고구려계의 문물로 보이며 고구려에서 移入된 것으로 사료된다. 문헌기록에 의거할 때 당시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주고 남부지방을 南征한 사실이 있어²⁵⁾ 당시 신라에 파급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板甲은 출토 상태를 보아 非乘馬用으로 비지배계층의 갑주로 일본의 지배계층에서 각광을 받은

24) 정정원·신경철, 고대한국갑주단상,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문, (통천문화사, 1984).

25) 崔鍾圭, 中期古墳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釜大史學 제7집, 1983).



〈圖 4〉鎧馬具 墓主 冠帽裝飾



〈圖 5〉新羅 송림사지 出土 冠裝飾

것과는 대조적이다.²⁶⁾ 5세기대 남부지방 甲冑文化는 土着系 甲冑文化와 外來系 갑주문화의 二樣相이 공존한다. 토착계 갑주는 4세기대의 갑주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板甲, 遮陽冑, 衛角付冑 등이 해당한다. 5세기 전반대의 土着系 甲冑는 革綴法으로 제작되었으며 釘結法이라는 新技法이 채용되면서 발전한다. 외래계 갑주는 고구려계 갑주로서 활갑과 弯曲縱長板冑가 이에 속하며 기마전술용으로서 지배계층의 防禦具로 등장한다.²⁷⁾

3. 三國의 儀禮服飾

가. 高句麗의 儀禮服飾

鎧馬具 玄室西壁에 있는 墓主 복식을 儀禮用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鎧甲馬 때문이다. 6세기에 이르면 개갑마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주로 의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鎧馬具의 鎧甲馬 역시 벽화에 묘사된 상황이 어떤 儀禮를 행하는 광경같다. 말의 寄生은 綠色·紅色·褐色으로 제비모양의 장식이 화려하고 장식적이어서 전투용으로 出戰하는 말이 아닌 儀式用 말임을 입증해 준다. 金元龍은 이 말을 昇天

用駕馬로 표현했다.²⁸⁾ 冠帽를 쓴 인물은 주변의 다른 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묘사되어 있다. 古代人들이 身分貴賤을 크기로 표현하여 귀한 사람을 크게 그리고 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한 점을 참고한다면 墓主는 상당한 신분임을 알 수 있다. 이 관모는 鳥羽形 冠裝飾 외에도 정상 부위에 장식물이 끊혀 있다. 장식물의 형태는 큰 줄기가 불끈 솟아 있고 그 좌우로 벌어진 가지에는 붉은색과 초록색 보석을 박은 듯한 장식이 달려 화려하다. 〈圖 4〉

時期的 差異는 있지만 이것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冠裝飾物이 8세기 신라유물에서 발견된 바 있다. 보물 325호인 칠곡 송림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銀製鍍金나무가지모양관은 길이 22.2cm에 이르며 고구려 관장식과의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관모에 끊어 장식했을 것으로 본다. 절의 탑속에서 발견된 이 장식물은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료되며 兩國間의 文物交流를 짐작할 수 있다. 〈圖 5〉

나. 百濟의 儀禮服飾

백제인들은 始祖 仇台·東明王·五帝之神에 제

26) 鄭澄元·申敬澈, 《동래복천동 고분군 1》, (부산대학교박물관, 1982)

27) 鄭澄元·申敬澈, 《古代韓日 甲冑斷想》, (윤두병박사 회갑기념논총, 1984).

28) 李亨求, 《전개서》, p.224.

사하고 天地·龍·異鳥를 신성시했으며, 귀신을 믿었고, 巫의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中國史書에는 占을 치고 觀相을 보며 陰陽五行法을 안다고 기록하였다.²⁹⁾ 『冊府元龜』에 ‘百濟는 매년 4仲月(2月·5月·8月·11月)에 王이 하늘과 五帝의 신을 제사한다. 그 시조 仇叔의 墓를 나라 都城에 세우고 4계절로 제사한다’ 했는데, 『三國史記』百濟本紀 내용을 분석하면 주로 國母, 東明王墓, 天地, 山川, 橫岳, 漆岳寺 등에 제사하며 정월에 가장 많이 지냈다.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복식은 武寧王陵 출토물 가운데 착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跨帶와 腰佩 및 金銅履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銀製跨帶와 腰佩 一具가 출토되었는데 銀製跨帶는 전체 길이가 70.4cm이며 타원형의 大小跨板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腰佩는 과대의 修飾物로서 전체 길이가 58cm에 이르며 王의 허리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이 과대와 요폐는 신라 왕급무덤에서 발견된 跨帶에 비해 그 형태가 단순하고 첫수도 實生活에서 착장 가능할 정도의 길이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로는 백제 鬼面磚에 표현된 착용 예가 있어 주목된다.

金銅履는 얇은 銅版을 오려 좌·우 옆판과 바닥을 만들고 표면과 바닥에는 忍冬唐草文을 흐트란 금동판을 씌우고 바닥과全面에 등글고 작은 영락을 달았다. 바닥에는 길이 2.5cm의 뾰족한 못을 한 줄에 4개씩 두 줄에 8개, 그리고 앞의 들린 부분에 1개를 박아 모두 9개 못을 박았다. 내부에는 布를 붙였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王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 특수한 상황에 착용했으리라 본다.

다. 新羅의 儀禮服飾

29) 최재석, 사회·민속편, 한국학자료대제87~1,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p. 345~357.

30) 경철화, 高句麗 壁畫 中의 社會·經濟,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대북연구소 출판부, 1991), p.130.

31) 崔茂藏, 전계서, pp.779~782.

新羅 역시 高句麗·百濟와 마찬가지로 王이 직접 국가적 규모의 제사를 주도했다. 왕급무덤에서 출토되는 金冠類와 跨帶·腰佩·金銅履 등은 副葬用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 정치적·종교적 목적에 맞추어 착용된 儀禮服飾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金冠은 三國 중 신라에서 발달한 가장 개성 강한 관모로서 日常用의 冠帽, 儀式用의 禮冠, 信仰上의 샤만 관, 葬送用의 實冠, 그 어느 것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고 본다.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는 王·王室 또는 귀족의 관모로 애용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王·왕실·귀족의 경축 또는 제사 등의 의식 예관으로도 착용했을 수 있다. 또 葬送 때의 보관으로도 부장했을 것이다. 祭政一致 사회체계의 부족 사회에서는 정치의 군왕이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巫者가 왕실과 귀족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착용하는 금관은 바로 왕관으로서 착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주술적인 샤만 관으로도 착용했을 것이다.

4. 三國의 獵獵服飾

가. 高句麗의 獵獵服飾

고구려인의 經濟生活 중에서 漁獵은 농업경제의 보총이며 또한 귀족들 오락의 일종이었다. 집안지역 고분벽화 중 獵獵圖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로 높다. 이는 수렵활동이 고구려 사람들의 經濟生活에서 매우 중요했음을 말해준다.³⁰⁾ 벽화에서 확인되는 사냥물로는 호랑이, 곰, 맷돼지, 사슴, 노루, 돈까, 죽제비, 토끼, 꿩과 각종 새들이며,³¹⁾ 이러한 야생동물의 모피야말로 고구려인들이 애용한 防寒用 의복재료였을 것이다.

『三國史記』本紀 내용을 분석하면 총 28대 王 가운데 15명의 王이 獵獵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

다. 사냥한 총 횟수는 29번이며 수렵을 행한 달을 기록한 것은 26개에 달한다. 狩獵은 주로 봄과 가을 즉 3, 4월과 7, 8, 9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3월 3일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사냥을 벌였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분벽화의 狩獵服飾은 주로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계절복식을 착용한 것이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활 시위를 당기는 수렵인의 복식에서 이같은 계절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德興里 古墳·安岳 3号墳·舞踊塚·藥水里 古墳 등을 통해 본 狩獵人의 服飾構造는 극히 간단하다. 관모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鳥羽를 장식한 折風이 돋보이며 이외에도 巾과 笠帽, 折風 등이 있다. 의복은 대개 와 袍를 착용하였다.

狩獵時 착용하는 鳥羽折風은 귀족들의 한가로운 취미를 위해 한껏 멋을 부린 관모라 할 수 있다. 折風에 꽂은 것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當代에는 깃털 모양에 따른 신분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듯싶다. 깃털은 모양이 다양하여 여러 종류의 새 깃을 쓴 듯하며 그 중『日本書紀』卷 14 雄略 8年 기사에 고구려 병사를 지칭하여 鷄之雄者라 하여³²⁾ 금 깃털을 修飾으로 썼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나. 百濟의 狩獵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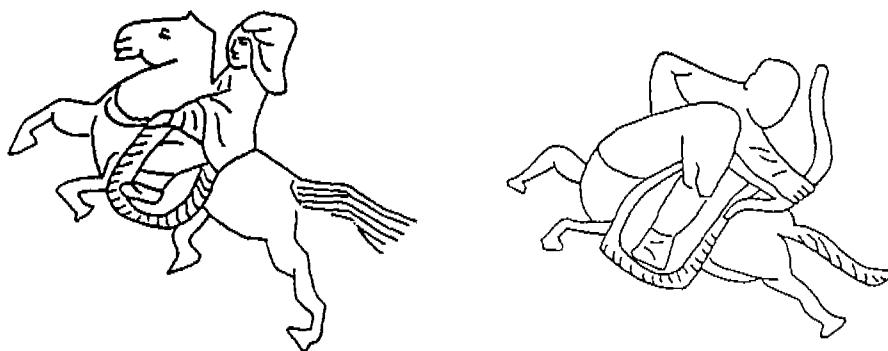
狩獵季節은 총 28번의 사냥기록 중 특히 9월(6번)과 10월(8번)의 사냥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狩獵物은 神鹿사냥이 4회, 사슴사냥이 5회로 기록되어 있다.

扶餘 陵山里에서 1993년도에 發掘한 國寶 第287號로 지정된 百濟金銅大香爐³³⁾에는 奏樂像·神仙像을 비롯하여 말을 타고 달리는 戎服 형태의 옷을 입은 騎馬人과 狩獵人이 표현되어 있다. 복식 형태는 개략적으로 묘사되어 세부적인 면을 볼 수 없으나 수렵인은 큰 활을 들고 한껏 시위를 당긴 모습임이 확인된다. 〈圖 6〉

『周書』에 戎事時 관모에 깃을 끊지 않는다 하였는데 騎馬人 머리에는 두건을 쓴 듯 별다른 장식물은 보이지 않고 바지통은 좁아 기마에 적합한 형태를 보이며, 狩獵人 또한 머리에 특별한 장식물을 부착한 것 같지 않아 기록 내용과도 부합한다. 소략하지만 백제복식에 대한 자료의 절대 부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가치있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다. 新羅의 狩獵服飾

『三國史記』新羅本紀에는 왕의 사냥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삼국이 모두 활쏘기를 중히 여겼



〈圖 6〉百濟 騎馬人과 狩獵人 服飾

32) 한국학기초자료선집(고대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233.

33) 百濟金銅大香爐와 昌王銘舍利瓶, (국립청주박물관, 1996), pp.14~17.

고 狩獵이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투의 훈련과정이기도 했다면, 신라의 경우 수렵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三國人의 嗜好가 크게 차이 났음을 암시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狩獵服飾에 대한 視覺資料로는 磚에 새겨진 頭를 쓴 인물이 있을 뿐이며 그 시기도 統一新羅로 내려온다.

IV. 三國時代 服飾의 獨自性

三國 服飾文化의 獨自性 배경에는 一次的으로 자연조건의 相異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조건 가운데 복식형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氣候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장기간에 걸친 氣象, 즉 氣溫·降雨·降雪의 평균상태를 의미한다.³⁴⁾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大陸의 東緣部에 놓여 있고 때문에 季節風이 卓越하여 겨울에는 寒冷乾燥한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温暖多濕한 기후가 나타난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人類는 그 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각각 상이한 생활을 하며 그 나라, 그 지역 고유의 歷史와 文化를 이루고 있다.³⁵⁾

우리 나라 年平均 氣溫은 남부 해안지방에서 14°C 内外이고 북부 해안지방에서 약 8°C, 개마고원 내부에서는 2°C까지 내려간다. 따라서 해안지방의 南北 年平均 기온차이는 약 6°C이고, 북부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기온차이도 약 6°C가 되는 셈이다. 특히 韓國의 겨울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기간이 길고 추우며 週期的인 기온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³⁶⁾ 한국에서 가장 추운 中江鎮은 겨울이 10월에 시작하여 4월까지 계속되어 장장 7개월에 이른다. 겨울이 길고 추운만큼 여름도 덥고 그 기간이 긴 편이다. 8월 平均氣溫은 남부 해안지방이 26°C이고, 북부 해안지방이 22°C

정도로 그 차이는 4°C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국토가 남북에 걸쳐 길게 펼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는 짧은 기간 내 큰 변화가 없어 觀測時代 자료로 歷史時代를 유추할 수 있다.³⁷⁾ 즉 高句麗는 冷帶氣候區에 속하고 新羅는 溫帶氣候區 중에서도 남부대륙형·중부내륙형·남부동안형, 百濟는 중부서안형·남부서안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 복식은 삼국이 비슷하다 가정할지라도 겨울은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고구려 복식의 경우 집안과 평양지역의 복식에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時代的·文化的 變數 이외에 결정적으로 기후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즉 한 국가 내에서도 복식형태가 氣候差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면 나라가 틀리고 文化가 다른 백제와 신라 복식 간의 차이는 당연했을 것으로 본다.

V. 結論

삼국복식에 대한 한국복식학계의 지배적 경향은 類似性을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 卷第四十二 列傳 金庾信 條에 '唐이 新羅를 侵攻하려 하매 王이 신하를 불러 대책을 물으니 多美公이 말하기를 신라백성이으로 거짓 백제인의 복장을 하고 賊害할 듯하면 반드시 唐人들이 공격할 것이다'라는 기록은當時 三國人們은 복식을 통해 서로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차별성이 존재했음을 암시해 준다.

本稿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부분은 支配階層의 복식을 착용 상황별로 고찰하여 삼국복식이 형태적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 본 것이다. 그같은 推定의 근거자료로 복식 형태 결정에 一次的 영향을 주는 氣候條件이 三國의 首都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 겨울 기온은 약 20°C 이

34) 申琦澈·申鎔澈, 새우리말 論사전, (삼성출판사, 1989), p.540.

35) 金蓮玉, 韓國의 氣候와 文化, (이화여대출판부, 1985), p.65.

36) 李燦, 氣候의 特色, (일지사, 1973), p.20.

37) 氣候學에서는 흔히 과거의 기후를 편의상 地質時代, 歷史時代, 觀測時代란 3時代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상이나 벌어지며, 여름 기온은 약 3°C 정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겨울 기온의 격차로 고구려에서는 특히 방한용 의복이 발달했을 것이며 삼국의 지배 계층 복식 형태도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의 官階組織과 官職을 검토함으로써 支配階層構造를 보았고 지배계층은 위용과 신분을 상징적으로 誇示하기 위해 각 상황별로 복식을 차별화하여 착용했다. 公務服飾은 7세기에 이르기까지 獨自性을 유지하고 있음이 뚜렷했다. 특히 삼국간 복식은 모두 褙와 衿를 입었으며 관모 형태에서 各國 복식의 두드러진 차별성이 나타났다. 고구려의 幀 형태는 집안지역 지배계층이 쓴 관모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王의 관모인 白羅冠으로 설명되어 온 妥岳 3号墳 주인공의 冠帽가 실상은 武冠일 가능성이 큼을 지적했고, 지배계층의 鳥羽蘇骨이나 鳥羽青羅冠, 鳥羽緋羅冠(鳥羽絳羅冠)의 형태는 折風이 발달하여 정착한 결과임을 논의했다.

戰鬪服飾은 고구려의 경우 騎馬에 적합한 札甲이 특색 있었으며, 胄에서 조차 고구려의 독특한 장식 습속인 雙角장식을 했다. 또 쇠못을 박은 鐵釘履와 金銅釘底鞋의 존재는 古墳壁畫와 出土實物이 모두 확인되어 地形에 따라 발달한 복식을 보여주었다. 백제는 明光鎧를 만들어 唐에 贈했다는 기록이 있어 발달한 갑주 제작 기술을 추측케 했다. 신라는 원래 短甲類의 고유 甲冑가 있었으나 5세紀代에 이르러 고구려 영향을 받은 札甲이 나타나 지배계층의 갑주로 각광 받았다.

儀禮服飾은 좌장 사례가 있는 고구려의 金屬冠裝飾과 백제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과대와 요폐에 한해 살펴보았다. 고구려 鎧馬塚 墓主가 儀禮時 착용한 금속 관장식은 화려하고 형태적 獨創性이 뛰어나며 統一新羅 銀花裝飾冠과 형태적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백제의 과대와 요폐는 좌장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이며 실제로 착용한 모습을 접할 수 있어 왕의 의례복식으로 보았다.

狩獵服飾은 高句麗의 경우 일상복식에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본다. 百濟金銅大香爐에 새겨진 狩獵

人과 騎馬人物 복식을 통해 백제 수렵복식의 개략적인 면을 살필 수 있었는데 형태적으로 좁은 바지와 장식을 가하지 않은 관모가 특색 있었다. 신라는 狩獵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고 출토 유물도 통일신라기의 狩獵磚에 새겨진 懷頭를 쓴 인물이 있을 뿐이어서 고구려, 백제와 다른 嗜好를 반영했다.

문헌자료의 부족과 출토유물의 偏重 등으로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복식문화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고, 지배계층 복식을 착용상황별로 고찰하였지만 자료가 있는 公務服飾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삼국시대 지배계층 복식문화를 전체적으로眺望할 수 없었던 것이 本研究의 限界이다.

參考文獻

〈古書〉

- 三國史記 / 三國志 / 隋書 / 新唐書 / 魏書 / 周書

〈단행본〉

- 高句麗 古墳壁畫. 北韓考古學術叢書 8. 조선화보사, 1986.
- 高句麗 古墳壁畫 高句麗特別大展. 한국방송공사, 1994.
- 百濟金銅大香爐와 昌王銘舍利龕. 국립청주박물관, 1996.
- 百濟彫刻·工藝圖錄.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3. 일본소장 1·2. 민예관 한국문화재 한국국제교류재단, 1993.
- 金蓮玉. 韓國의 氣候와 文化. 이화여대출판부, 1985.
- 金哲埈.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1990.
- 申鐘植. 三國史記研究. 일조각, 1981.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增訂本. 常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1992.
- 劉永華. 中國古代戎服飾.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 高麗大學校 民

- 族文化研究所, 1988.
-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1993.
 - 李亨求. 韓國古代文化의 起源. 도서출판까치, 1991.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75년.
 - 周迅·高春明. 中國古代服飾大觀. 重慶出版社, 1996.
 - 韓國考古學關係 中國資料選輯 2. 文物編. 白山資料院, 1994.
 -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華梅. 中國服裝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95.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6.
 - 金正子. 韓國軍服의 變遷史 연구—戰鬪服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宋桂鉉. 三國時代 鐵製甲冑 研究—영남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梁慶愛. 高句麗人의 服飾文化 考察. 복식 제25호. 한국복식학회지, 1995.
 - 劉頌玉. 高句麗服飾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 李成美. 朝鮮의 미술사 연구현황 : 고분벽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이홍직. 梁職貢圖論考. 한국 고대사 연구. 신구문화사, 1973.
 - 任桂淳. 歷史學에 있어서의 計量的 研究 方法의 意義. 이화사학연구 11·12, 1981.
 - 鄭澄元·申敬澈. 古代韓國甲冑斷想. 윤무병박 사회갑논총. 통천문화사, 1984.
 - 洪思俊. 梁代職貢圖에 나타난 百濟國使의 肖像에 대하여. 백제연구 12.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the Ruling Classe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is study is about the similarities and the individualities of the traditional costumes in the ruling classes of Koguryo(高句麗), Bakjae(百濟), and Shilla(新羅).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views of historical reformation on『Samgooksagi(三國史記)』Bongi(本紀). The costumes that were worn by the governing classes are categorized by the following, official duties, wars, ceremonies, and recreations(hunting).

Up to the present time, there has been a great tendency to emphasize the similarities of the Three Kingdoms' costumes among most of academic researchers. However, the conceptions of individualities of the costumes among the Three Kingdoms were conceived by the facts that geological environments, political systems, social traditions, social aspects, and foreign affairs. The Three Kingdoms had dif-

〈論文〉

- 姜仁求. 평양학계의 고구려고분 조사연구 성과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姜淳弟. 우리 관모의 始末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孔錫龜. 安岳 3号墳의 묵서명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21, 1989.
- 김광수. 고구려 고대집권국가의 성립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金光植. 한국의 고대 기상자료분석 1. 한국수문학회지. 제17권 제4호, 1984.
- 金蓮玉. 한국의 기후환경이 한민족 문화에 미친 영향. 정신문화연구 14-1, 1991.
- 金正子. 韓國軍服의 變遷史 연구—戰鬪服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朴京子. 德興里 古墳壁畫의 服飾史의 研究. 복식 제5호. 한국복식학회지, 1981.
- 宋桂鉉. 三國時代 鐵製甲冑 研究—영남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梁慶愛. 高句麗人의 服飾文化 考察. 복식 제25호. 한국복식학회지, 1995.
- 劉頌玉. 高句麗服飾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 李成美. 朝鮮의 미술사 연구현황 : 고분벽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이홍직. 梁職貢圖論考. 한국 고대사 연구. 신구문화사, 1973.
- 任桂淳. 歷史學에 있어서의 計量的 研究 方法의 意義. 이화사학연구 11·12, 1981.
- 鄭澄元·申敬澈. 古代韓國甲冑斷想. 윤무병박 사회갑논총. 통천문화사, 1984.
- 洪思俊. 梁代職貢圖에 나타난 百濟國使의 肖像에 대하여. 백제연구 12.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1.

ferent official rank systems along with official costume systems. Monopolization of official positions of the ruling parties tried to show their dignity and authority through styles of their costumes.

The costumes of Koguryo were greatly differentiated by geographical regions :

One direct example is cheak(幘) and laguan(羅冠). Up until present time, cheak of Pyounyang and Anak regions was named as official hats of rulling parties of Kokuryo. However, in this study, the cheak was viewed as a product of influences of Chinese costume. Furthermore, the laguan was named as mooguan(武冠).

Costumes of ceremonial occasions were heavily decorated to symbolize dignity and authority. Metal ornament of headgear(冠飾) and belt(跨帶), metal shoes(金銅履) were considered as ceremonial costumes. The tight hunting costumes of Koguryo shown in mural paintings were presumed to be spring and autumn clothing. Excavated from Neungsanlee(陵山

里), the hunting costumes inscribed in the gold incense burnner were confirmed as hunting costumes of Bakjae.

The individuality of the costumes of the Three Kingdoms could also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y had different climate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Gipan region and Kyoungjoo(慶州) region was emphasized. Especially winter clothing would have had a big difference in style than the summer clothing.

Through the research summarized above,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each of the Three Kingdoms had developed individualized costumes based on their geographic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urthermor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s well as the similarities of their costumes according to each of their people's sociopolitical status, awareness of independence, and unique historical and traditional characteristics.